

기사주소 : <http://www.kyongbuk.co.kr/main/news/pNewsPrint.php?newsId=517511>

농림어업총조사 적극 협조를

종사인구 7%대 이하 감소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쓰여

기사입력 | 2010-12-03



▲ 기세왕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전 국민이 함께 한 인구주택총조사가 끝 난지 보름만에 한 번 더 농림어가 곁으로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70년대 이전 농림어업 위주의 1차 산업에서 지금은 세계 무역량의 8위가 말해주 듯이 최첨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 가구 및 종사인구가 7%대 이하로 급감되고 취약산업으로 전락돼 날이 갈수록 미국, 중국, 호주 등에 비해 농림어업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농림어업은 사람의 기본인 의·식·주의 근본이고, 대외적으로는 '식량 무기화'라는 현실이 점점 우리들 피부에 근접하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라 핸드폰, 자동차를 수출해 쌀 등 식량을 수입해서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사람은 핸드폰,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식량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언제 산업구조가 뒤 바뀔지 모를 상황에서, 최소한의 우리 주식만은 자급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기반이 돼야한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농림어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어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지혜를 모으면 덴마크 등 유럽선진 농업국 이상의 우리 농산어촌도 복지 강국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세왕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향후 5년간 우리 농림어업의 시금석이 될 '2010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농림어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치밀한 운영으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총조사의 특징은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기준액이 5년전 50만원이상에서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농가 정의를 현실화 했다. 또 21세기 녹색 성장과 연계한 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작성으로 논벼 물 관리, 논벼 볏짚처리, 유기비료 사용, 가축 분뇨 처리 항목을 신설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기간중 조사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와 사실 그대로 응답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조사 결과는 농산어촌을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 입안과 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조사원 6천266명, 공무원 460명을 동원해 지난 11월 30일 준비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본 조사에 들어갔다.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가 농림어업총조사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싶어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사원들에게도 철저한 주의와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실사 지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 직원들 동분서주하고 있다.